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대강절 셋째 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8. 내 영혼아 곧 깨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현존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버리고 자꾸만 넓은 길로 나아가던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생명의 길이라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뒷걸음질치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어둠이 주는 매력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뭔가를 서둘러 하기보다는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의 사다리를 높이 올라 영광의 열매를 따기보다는, 자비와 긍휼의 샘물을 길어 목마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조용히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에 사로잡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벧전2:25 인도자

♠ 교 독 문 32. 시편 143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조운숙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함께

성경봉독 I. 느5:1-13 인도자
 II. 사61:1-4 윤성종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그래도 희망은 교회 최인환전도사
 II. 재 대신 화관을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비틀거리는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무너진 인정의 토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 땀흘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제아무리 무거워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음 저 너머에서 줄곧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벗으로 살되,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005년도 당회	에베소서 강해(28)/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근종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김종훈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창운 고광송 박혜경 노순옥 최영선
	헌금위원	한완식 김용진 김근종 김애경 구명자 백혜숙

헛된 행복의 추구

그때 나는 명예와 돈과 결혼을 열망하고 있었고, 당신은 나를 보고 웃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추구해 나갈 때 나는 아주 쓰디쓴 곤경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는 그 곤경을 통해 크게 역사하셔서 내가 당신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당신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내 영혼을 저 강한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 영혼이 당신에게만 굳게 의존해 있게 하시옵소서. 그때 내 영혼이 얼마나 불행하였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내 영혼의 아픈 상처를 찢러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나 당신 없이는 모든 것이 존재할 없사오니 이제 내 영혼이 당신께 돌아가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불행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깊이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황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연설에서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었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박수갈채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그것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고 초조한 생각으로 열이나 들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밀라노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불쌍한 거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술에 아주 취해서 웃으며 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욕심의 박차 아래서 내 불행의 짐을 끌고 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끌고 가면 갈수록 그것은 무거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의 목적은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 거지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경지에 이르렀고 우리는 그곳에도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몇 푼의 돈을 구걸하여 얻은 그 지상의 행복감을 나도 맛보려고 꼬불꼬불 구부러진

길을 헤매며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가 소유한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찾고 있었던 행복은 더 거짓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확실히 명랑했고 나는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근심이 없어도 나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에게 묻기를 즐거운 것이 좋으냐 두려운 것이 좋으냐고 한다면 물론 나는 즐거운 것이 좋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에게 묻기를 저 거지처럼 되겠느냐 아니면 네가 살아왔던 대로 있겠느냐고 한다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나 자신대로 남아 있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비교가 적절합니까? 내가 학식이 좀 있다고 해서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학식으로 내 마음이 기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학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만 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징계의 채찍으로 나의 뼈를 부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인간이란 어떤 대상에서 행복을 찾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저 거지는 술 취하는 데서 행복을 찾았고, 너는 영광을 획득하는 데서 네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면 내 영혼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여, 무슨 영광을 내 영혼이 찾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지의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찾는 영광도 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추구는 더욱 더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지는 그날 밤 바로 그 술에서 깨어 제정신을 찾았을 것입니다만 나는 내 문제를 안고 매일 밤 자고, 매일 아침 일어나며, 또 계속하여 자고 일어나 매일 매일을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인간이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깁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에서 오는 기쁨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헛된 영광 사이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헤어지는 아픔을 즐까봐 말없이 떠납니다.” 지난 21일 이른 아침 마리안느 슈퇴거(71) 수녀와 마가렛 피사렛(70) 수녀가 소록도를 떠났다. 2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에 수도자로 이 땅의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온 지 43년 만이었다. 이들이 안개 속으로 떠난 뒤 주민들은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라는 편지를 발견했다.

“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우리의 부족으로 마음 아파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이들이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는 온통 슬픔에 잠겼다. 주민들은 병원과 성당에서 눈물 속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사랑만 남기고 떠난 천사들을 기리는 글들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이들은 1962년 6월 한센병 환자의 아픔을 덜겠다며 소록도를 찾았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은 고국에서 보내온 의약품과 지원금으로 사랑과 봉사를 베풀었다. 또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 장애교정수술을 알선하고, 정부도 무관심했던 한센병 자녀 보육사업과 자활정착사업에도 전력을 다했다. (.....) 봉사와 기도로 평생을 보내고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 그 동안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몇몇 정부 표창을 제외하고는 감사장과 공로패도 마다했다. 이들은 떠나기 하루 전 병원 쪽에만 귀향을 알리고 43년의 봉사를 마감했다. “제대로 일할 수 없어 부담을 줄 바에는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였다. 편지 한 통만을 섬에 남기고 떠나는 은발의 수녀 손에는 43년 전 들어올 때 가져온, 다 해진 손가방 하나씩이 전부였다.

(2005년 12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발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정덕 구성실 조병무 송양진 구명자 김필순 김근종
 정옥영 박애순 이인웅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박영희 윤미경 김지호
 김지윤 김순복 전영웅 고광송 이춘희 왕성환 강순배 이선림 최인환
 양재성 장영숙 임보람 이은옥 오진훈 노순옥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하정석 이명희 서재홍 박현우 유증희 이재문 정미경
 최윤희 문금석 최주환 문복순 정두리 전영규 김경수 김미순 김 극
 김종문 지명주 송의섭 이경남 권미정 정원석 김현영 이호원 송남필

감사헌금:

이봉옥 장혜숙 이성범 이민범 이인섭 왕성환 강순배 문홍일 이미혜
 김종훈 안경숙 김용길 최영혜 정복순 무명2

생일감사헌금: 이소순 김중수 구도헌금: 임창선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김 애 경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문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홍 복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임 수 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숙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상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2. **당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친교실에서 교회의 일년을 돌아보고 새해의 일꾼을 선출하는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3. **목요성서모임** : 15일(목)부터 ‘전도서 이야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주시기 바랍니다.
4. **연합속회** : 12월 16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이고 속회 방학에 들어 갑니다.
예배인도 - 갈릴리 속 식사준비 - 안디옥 속
5. **새벽기도회** :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적정 실내 온도(18도~20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내복을 입으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 헌화 : 문금석 권사 (남편 3주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